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거만한 자, 미련한 놈, 믿음의 사람 성경: 열왕기하 1장 13-17절

Tag:

13 왕이 세 번째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보낸지라 셋째 오십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오십 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14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오십부장 둘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15 여호와와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16 말하되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뿔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은 안 계시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17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와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왕하1:13-17)

아합 이야기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로, 군대장관 하던 자.

오므리의 경쟁자 시므리(설레발 치는 자).

시므리(병거 절반을 통솔하던 지휘자)가 바아사 집안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반역을 일으킴. 바아사 집안을 몰살하고 7일간 왕이 됨.

그러나 백성들은 군대 절반의 통솔자 오므리를 왕으로 삼자, 시므리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함. 그는 이스라엘을 12년 다스림.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나, 그 아내 이세벨은 페니키아 왕 옛바알의 딸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선지자 850명을 거느리고 시집옴.

그녀는 온갖 못된짓을 도맡아 하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킴.

하나님께서 아합에 거는 기대가 있었음. -하나님은 그가 아내 이세벨 때문에 신앙적으로 나약한 상태임을 인정하심.

엘리야를 보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심.

그후에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아합은 은근히 자신의 욕심을 채김. 이세벨의 기준에 의하면 아합은 나약한 왕.

엘리야는 그의 뜨뜻미지근한 태도와 악행에 대해 저주를 선포함.

놀랍게도 아합은 그 저주를 인하여 회개함.

하나님은 그가 회개 하였으므로 그 저주가 아합의 때가 아닌, 그 아들의 때에 임할 것임을 예언하심.

*하나님은 정의를 위해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이지만,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저주를 풀고 심판에서 비켜가기를 원하고 계심. 저주를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하나님은 그가 어떤 곤경에 처해 있고, 무엇 때문에 바른 신앙심을 갖추지 못함도 아시고, 그에 대한 배려도 하심.

*그러나 결코 나약한 신앙과 그로 인한 죄악에 대해서 모른척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응당한 댓가를 치루게 하시는 분.

첫째 아들 아하시야 이야기. 그는 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나, 여전히 엄마 이세벨의 영적 그늘 아래 있었음.

-엘리야의 저주가 시행될 날이 가까워 옴.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악행을 저지름.

그가 낙상하여 뼈가 부러짐. 당시로서는 뼈가 부러졌으니 죽을 가능성이 큼. 그는 자기가 살 수 있을지 궁금함. 신하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파리대왕)에게 보내어 점을 치게 함.

-당시도 파리가 질병을 옮기는 날벌레로 알려졌나 봄.

-상처에 파리가 알을 까면 그는 살 수도 있음.

-그는 움직이지 못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설하지 못하면 죽게 됨.

엘리야가 신하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신하가 왕에게 가서 선지자를 만났다고 보고함. (정체는 보고치 않음. 왕이 무서워서.)

-왕이 어떻게 생겼더니 묻고, 털이 많은 사람인데 가죽띠를 하였다고 하니, 엘리야인줄 알아 봄.

-왕이 즉시 오십부장을 보내 엘리야를 데려오라 명함.

-왕이 가장 충성스럽고 신임하는 자를 보냈으리라. 그가 정중히 지혜로운 신하를 보내지 않고 군대를 보냈으니, 그의 행위가 포악함. (이미 엘리야를 만난 신하를 보냈어야 함. 그것이 타당하나, 그는 그 신하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함. 그는 아마도 엘리야를 무서워하고 있다고 의심함.) 그는 왕을 가장 많이 닮았을 것임. 왕이 가장 신임하는 자였을 것임. 측근 호위부대였을 것임.

-엘리야는 겁이 많은 사람인데 오십부장의 무례한 행위가 저주를 촉발함.

-틀림없이 오십부장도 거만했을 거임. 그는 엘리야의 노를 격발함.

-오십부장은 힘겹게 산에 오름. 엘리야는 꼭대기에 앉아 있음. 그가 매우 땀나고 신경질이 났을 것임. 숨 가쁜 소리로 여러번 내려오라는 왕의 뜻을 전함. 만약 내려오지 않으면 강제로 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을 것임.

-그러자 엘리야는 주특기를 살려 군사들을 사름.

-왕은 두 번째 오십부장을 보냄.

-그는 미련한 자임. 앞뒤를 모르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자임. 그는 자기가 이제 첫째 호위무사가 되었음을 알았을 것임.

-그는 엘리야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재촉함.

-왕이 많이 아팠고, 견딜 수 없어서 신경질을 내면서 재촉했을 것임.

-오십부장은 미련하게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왕의 뜻을 전달함.

-그러자 그도 사름.

-세번째 오십부장은 사태 파악이 됨.

-그는 왕에게 죽기까지 충성할 맘이 없음.

-그는 재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림.

-그는 왕의 명령이 있더라도 엘리야를 죽일 사람이 아님.

-이미 왕의 군사력은 생명을 다함.

-군인들의 사기는 왕의 명령을 떠남. 명령에 순종했을 때 형통해야 왕이지.

-분위기가 달라짐.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에게 내려가라 함.

-그제사 엘리야는 안심하고 왕에게 가서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전함. 왕은 그제사 사태를 확실하게 파악함.

-결국 그는 죽게 됨.

-세 번째 오십부장은 믿음이 있었음. 모두 죽었지만, 믿음의 사람만 살아남음.

-결국 아하시야는 어미 이세벨의 영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죽게 됨.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도, 겸손함도 배우지 못함.

-그 가정에 흐르는 영적인 기상도가 매우 중요함.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겸손함과 경외함을 보일 것.

-하나님 앞에 건방지는 것은 저주를 자초하고, 다른 사람의 저주에 동참하는 꼴임.

-아하시야가 만약 겸손했더라면 그의 죽음은 그토록 비참하지 않았을 것임. 다시금 살아날 수도, 저주가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임. 만약 후손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그 피할 길을 가르쳤다

면 그가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임.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만 가르치는 것은 반쪽 가르침,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도 가르치고 그 심판을 피할 길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함.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인간 진화의 열쇠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Tag: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엡4:13)

동물과 인간의 다름과 유사성에 대한 연구는 산더미.

-성품, 습성, 문화, 생활방식, etc.

-닭은 것으로 친근감, 동질감을 안정감을 확인함.

-그러나 같은 종이라도 최고의 다양성을 보임.

-인간과 모든 동물은 매우 많은 공통된 부분이 있음.

-그러나 아무리 세분된 동종이라도 개체별로 매우 다양한 차이가 있었음.

-사람은 침팬지와 DNA가 98.76%>98.5%>95% 같다.

-멀리서 보면 닮아있고, 가까이서 보면 다르다.

-DNA가 같아도, *배열과 *조합과 *시기와 *시간이 다름. 그것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벌여놓게 됨. (인간 중에서도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원시인과 문명인의 차이가 벌어짐)

그런데 사람의 DNA의 배열과 조합과 시기와 시간은 양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DNA도 매우 중요, 그러나 양육이 더 중요.

-양육이 왜 중요한가? 양육은 DNA의 올바른 사용법이기 때문이다.

-양육의 핵심. 타이밍. 어떤 유전인자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기간만큼 발생하도록 했는가?

-120년 한정 기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워야 하는가?

-결국 2세 교육에 힘을 쏟는 것이 전체 인류 발생에 도움이 됨.

- 마귀는 인류가 발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
-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매우 이상한 말이 됨.

-DNA가 중요함. 어떤 유전자가 발달할 가능성에 있는지, 사람마다 개성은 천차만별.

-나는 어떤 DNA를 위해서 언제부터 얼마동안 발생을 유도할 것인가?

-사실 DNA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성경말씀으로 자녀의 가능성을 열어두라.

-세계사를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는 나라가 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갈 수 없다.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는 나라는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 때문에 열린다. 한 사람의 경건한 대통령 때문에 열리기도 한다.

-적어도 나는 한 사람의 경건한 사람으로, 한 가정의 부흥과 복을 담당해야 한다. 그것이 상급이다.

-우리는 DNA전문가가 아님. 그러나 하나님이 DNA전문가임을 믿어야 함. 전문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불꽃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함.